

직업성 피부병



양길승
성수의원장

1. 들어가는 말

노동현장에서는 피부를 자극하는 여러가지 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피부질환이 생겨나고 대부분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일쑤이다. 그러나 계속 피부병이 생겼다가 낫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거나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직업성 피부병은 결코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질병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체 직업병에서 피부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나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물질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피부보호제나 기구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병하면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 이황화탄소중독 등 전혀 회복이 안되는 질병만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장애가 생긴 경우만을 생각할 뿐 피부에 생기는 직업병에는 노동자는 물론 직업병 전문가들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당연히 많다고 하는 직업성 피부병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많은 환자들이 막연히 작업과 관련이 있으려니 짐작을 하면서도 약국이나 의원에서 개인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노동자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평생 직장이

평생동안 불편을 주는 곳으로 있어서는 경쟁력도 생산성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무시당해 온 직업성 피부병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대응하여 일하기 좋은 노동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직업성 피부병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피부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제사공장이나 방직공장에서 상처입은 피부에 생기는 봉와직염이나 피부염 환자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72년에 205명, 73년에 250명, 74년에 540명으로 증가다가 75년 125명, 76년 202명, 77년 156명으로 줄어 78년 이후에는 한명도 없다가 80년대 초에 6명을 끝으로 한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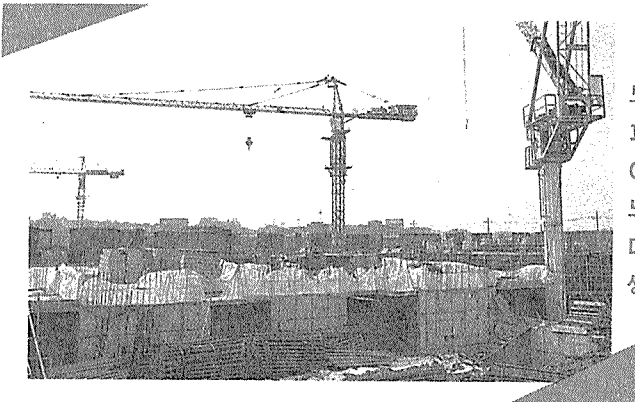
산이나 알칼리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피부병도 74년 73명의 보고가 있었을 뿐이고, 그밖에는 75년의 3명 뿐이다. 그대신 타르

나 시멘트 등을 다루는 노동자의 피부병이 77년 294명, 78년 63명, 79년 79명이 보고되었으나, 그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피부암의 보고도 72년 유일하게 6명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70년대에는 몇백명씩 보고되던 직업성 피부병 환자가 80년대 들어서는 한명도 없는 해가 반이 넘고, 있다고 해도 8명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90년대에도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산업장의 보건관리제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실제로 환자가 없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즉 특수건강검진에서 피부질환을 관심있게 보지않고(피부과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상근하는 보건관리자가 피부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성 피부병이 그냥 지나쳐져 버린 것이다.

실제로 1990년에 경인지역의 자동차 정



노동현장에서는
피부를 자극하는
여러가지 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다양한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비업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대상자의 83.1%인 368명이 한가지 이상의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89년에 포항과 울산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9%인 2,550명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으며, 91년 제화업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4.2%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업성 피부병을 찾으려 한다면 엄청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시급히 있어야 할 것이다.

3. 직업성 피부질환의 유형과 원인

직업성 피부병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접촉성 피부염(습진)

습진은 급성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붓고 물집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앉고, 만성기에는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하얗게 비늘처럼 일어나거나 색깔이 변하는 증상을 통털어 일컫는 것이다. 직업성 피부병의 9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나. 모낭염이나 여드름 모양의 염증

피부에 나 있는 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작은 종기처럼 되거나 여드름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피부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광물류 등이 있는데 염소성 좌창(염소성 여드름)처럼 고염제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내부장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색소변성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색깔이 없어지거나 침착된다.

라. 궤양

피부가 혈고 패이는 것으로 크롬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삼산화 비소, 비소화 칼슘, 질산 칼륨 등이 있다.

마. 피부암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은 자외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밖에도 방사선, 방향족 탄화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즉 광물류, 피치, 아스팔트, 콜탈 등의 물질과 비소 등의 물질이 있다.

이외에도 산에 의한 화상, 기생충이나 균에 의한 감염 등 여러가지 직업성 피부병이 있지만 대중을 이루는 것이 접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아래에 그 원인 물질중 중요한 것만을 몇가지 소개한다.

- 금속 : 니켈, 크롬화합물, 수은, 베릴리움, 금
- 합성수지 : 에폭시레진, 페놀수지, 포름알데히드수지, 아크릴수지
- 대부분의 유기염료, 발색 물질
- 의약품 : 네오마이신나 타메로살, 벤조카인 이 들어 있는 연고

- 고무제품 중의 가소제, 항산화제
- 유기용제 : 이황화탄소, 석유제품(경유, 휘발유, 게로신), 사이롤, 톨루올, 염소화 탄화수소(염화메틸, 트리클로로에틸렌, 푸레온), 메타놀, 에타놀, 메틸 아세테이트, 부틸 아세테이트, 아세톤, 메틸에틸 케론
- 살충제 : 설파, 다이렌, 크레오소트, 갑탄 등
- 절삭유 등 황이나 염소를 함유한 기름들
- 유리섬유, 시멘트, 콜탈이나 피치
- 폼알데하이드나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비누와 세정제

4. 직업성 피부병의 치료와 예방

대부분의 접촉성 피부염은 습진의 치료법에 잘 반응하여 더이상 원인물질에 폭로되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계속 폭로될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화하여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폭로와 접촉을 막고 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직업성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먼저 노동자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유해성과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것을 줄이고 또 작업중이나 끝났을 때 샤워를 하거나 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피해를 많이

직업성 피부병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줄일 수 있다.

오염된 피부는 적절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씻도록 하고, 이때 세척제에 마찰제나 유기용제가 들어 있어서 잘 씻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피부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밖의 방법으로는 피부 보호기구나 물질을 쓰는 것이 있다. 앞치마, 장갑, 피부보호 소매덧옷과 신발을 쓰게 되면 폭로가 되어도 위험은 줄어든다. 피부보호물질은 보호구 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다루는 물질에 따라 크립이나 로손의 형태로 된 것을 바르므로써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피부에 덜 유해한 물질로 사용하는 물질을 바꾸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계속 새로운 공정과 물질이 사용되어 가고있기 때문에 직업성 피부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와 조사에 앞서 직업성 피부병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